

TO. 미즈노 마사유키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세상을 가꾸는 짱 대표 박은우라고 합니다.

저는 멘토님께서 진정한 짱의 멘토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짱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사회 디자인 동아리 인데 멘토님께서 카페일을
하시면서 사람과 사람, 트리하우스로 사람과 자연, 한옥이 사람과
문화가 함께 하기 때문에 진정한 짱의 멘토님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는 나무하면 산이 떠올라 산 위에 트리하우스가 있을 거라

생각하였지만 가정집 안에 트리하우스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멘토님처럼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크면 멘토님처럼 트리하우스를
만들고 다른분들이 구경할 수 있게 할 것 입니다.

제가 멘토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우리는 지구인이고 다른나라지만 같은 지구인
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였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다음에 꼭 방문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없는 시간에서도 저희들을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6/29 (화)

from. 박은우

미즈노 마사유키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하 입니다 제게 이번 토요일에
방문하셨을 때 멘토님은 저보다 조금전에 오려하셨습니
나4은 나를 찾아간 이런 말을 통해서도 들어보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싶은 일을 구분 짓고 좋아하는 것
같은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일을 통해 양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것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가능성 있는
것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생각됩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하려 할지
거기서 영감을 얻고 계속 성장해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생각
으로 생각합니다

2020. 2. 29 (월)

이동하 드림

202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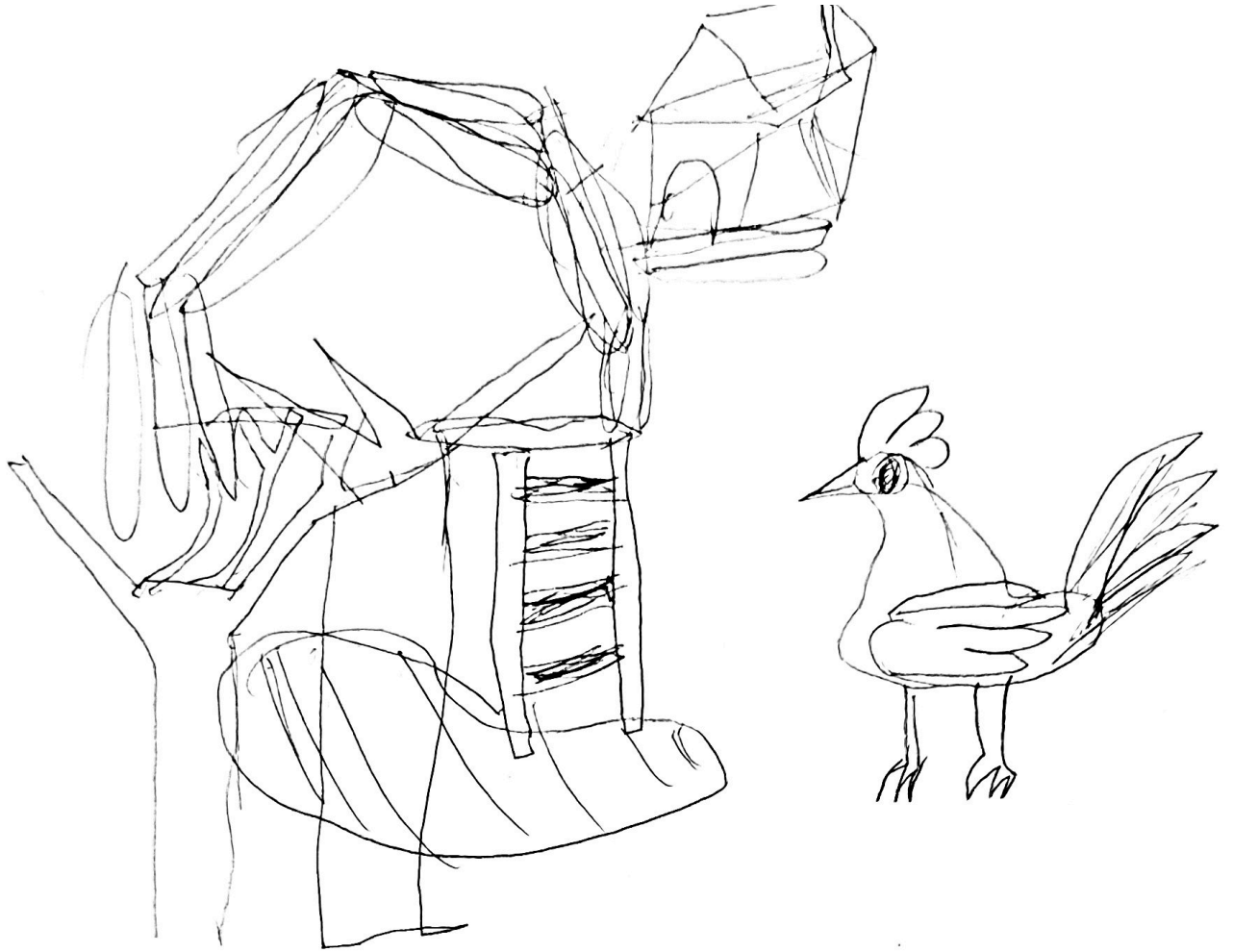
미즈노씨
(레슨장)



안녕하세요 미즈노씨, 저는 정주연입니다. 저번에
 나꾸집에 갔었던 광고광고하시 정말 정주연입
 니다. 저번에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다음장에 다음 사제가
 아더라고요. 조금 심플했습니다. 한번 이휘를
 알아봐주세요. 귀찮으시거나, 심심
 시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꾸집 나꾸집》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서 꼭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서 반쯤 드려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2020.6.30 - 정주연이 드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이기환이라고 해요. 순간
멘토님에 나무집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멘토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많아
재미있었어요. 또 신기하고 복잡한 길이 많아서 복잡했어요
그리고 미르노씨네 집에 들어갔는데 칩이 마치 미로 같아서
엄청 흥미있었고 신기했어요. 멘토님 집에서 주먹밥을
먹었는데 진짜 평소 주먹밥과는 달라 신기했고 또
엄청 맛있었어요. 멘토님 나무집은 정말 근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멘토님, 미즈노 마사유키'님'

멘토님, 미즈노 마사유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았던 광주광역시 당사대장
강승운입니다.

저는 처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
일반인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 했어요,
하지만 '미즈노 마사유키'님을 만나고 나니 그런
편견이 없어 졌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꿈이 무엇인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즈노씨의 트리카페'에 또 오겠습니다.

후: 제 오사도 거기 있어요. (경정, 주황색) 2020-6-30
-강승운 올림-

2020. 6. 30.



이벤트엔딩까지

미즈노 사사키 메리니, 이번이 10주째가
 10주째라고 합니다. 10주째라고 한다면 10주째가
 새가 될까봐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뉘는 습관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상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밤을 잘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인상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밤을 잘 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